

소비자



제사년 설맞이

올해 설 선물 키워드는 '실속형'

인기 많은 한우·굴비·홍삼세트 가격 작년수준 동결

'가격혁명세트' 품목 늘리고 포장지 줄여 비용 절감

최근 3년간 지역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설 명절 선물은 한우와 건강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 탓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가·실속·알뜰'이 선물세트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건강식품은 스테디셀러=지역 백화점들이 최근 3년간 설 선물세트 매출을 살펴본 결과, 한우, 건강식품이 스테디셀러로 꼽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010~2012년간 설 선물세트 전체매출 중 한우의 매출 비중이 26%로 가장 높았고 건강식품이 24%로 뒤를 이었다. 상품권은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았다.

(주)광주신세계에서는 같은 기간

홍삼세트(25%), 굴비세트(10%), 한우세트(7%)가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세트는 최근 몇년째 소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선물세트 가격도 10% 가량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식품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효도용 선물로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백화점 측은 분석했다.

◇저가·실속·알뜰세트가 대세=극심한 불황 탓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절 선물세트는 저가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지역 유통업계는 명절 인기 선물인 한우와 굴비는 실속형 선물세트로 구성을 늘리는 한편 저가 선물세트 상

품군을 다양하게 편성해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주)광주신세계는 10만원대 미만 중·저가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 보다 20% 가량 늘렸다.

특히 지난해 설 저가세트와 프리미엄 세트에 관매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을 감안해 동업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도 강화해 선물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올해 설 선물세트를 지난해 수준 가격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또 전체 50% 세트 품목에 피자를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담은 포장지를 종이 대신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비용 절감 효과를 냈다.

이마트는 자체분석 결과 저렴한 선물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보다 '가격 혁명 세트'를 18%가량 늘린 90여개 품목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2900원대 양말세

트 등 1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 8%에서 올해 10~20% 가량 늘렸다. 명절 대표선물인 한우 선물세트는 시세가 떨어짐에 따라 올해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물량을 전년 대비 10% 가량 늘려서 준비했다. 꽃감은 올해 전체 물량이 전년 대비 30~50%나 늘어날 정도로 풍작인 점을 고려해 전년보다 10~20% 가격을 낮췄다.

태풍 낙과 피해를 많이 입어 시세가 30% 가량 상승한 배보다는 가격이 10~20% 더 저렴해진 사과세트 물량을 30% 늘렸다. 가격이 15~20% 가량 오른 굴비세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는 대신 냉장 정육세트 물량을 30% 가량 늘렸다.

수산물도 불황형 제품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던 4만원대 굴비세트를 6500세트 준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일유업, 프리미엄·일반분유 하나로

'애플루트 엄마가 만든 명작' 리뉴얼 출시

매일유업은 영양성분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 비싸기만 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프리미엄급 분유 제품을 없애고 조제분유 제품군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매일유업(대표 이창근)은 기존 프리미엄 분유와 일반분유로 이원화 된 조제분유 제품군을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하고, 한국인 모유수준에 맞춰 성분과 함량을 조절된 유아식 '애플루트 엄마가 만든 명작'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 출시는 지난해, 프리미엄 분유와 일반분유의 영양 성분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프리미엄 분유가 일반제품 보다 30%

이상 비싸다는 한국 소비자 생활 연구원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의 논란을 불러왔던 '프리미엄' 분유를 없애고 모유에 가장 가까운 제도로 된 분유를 선보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매일 모유연구소를 통한) 체계적인 모유 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삼성·신한카드 무이자 할부중단 다음달로 연기

KB·롯데·현대카드, ARS 할인이벤트 고객불편 최소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주요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중단시점을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무이자할부 행사 중단 시점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가운데 업계 1위인 신한카드도 다음달 17일까지 전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2~3개월 무이자할부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 무이자 할부 형식을 발리긴 했지만 사실상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 중단을 내달 17일까지 미룬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 수위인 신한카드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축소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한카드 자체 비용으로 회원 서비스 차원에서 한 달간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무이자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비용을 카드사와 가

맹점이 함께 부담해야 하나 대형 유통점들이 이에 반발, 일부 카드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무이자할부 중단을 다음달로 연기함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밀리는 다른 대형 카드사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은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전화(ARS)에 응모하면 당첨된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벌써~' 한파속 계절잇은 '봄나물'

10일 오전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에서 직원들이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봄나물을 비롯해 보리, 썬초 등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인공지능 전자지갑 나온다

이동 경로 맞춰 부가혜택 알려줘... 세계 최초

스마트폰 소지자가 이동하는 장소마다 최대 부가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전자지갑이 세계 최초로 나온다.

이강태 비씨카드 사장은 10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모바일 시대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전자지갑으로 카드업계의 '애플'이 되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 전자지갑은 주요 카드사가 출시한 단순한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담아 결제시 본인인 선택해 쓰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인터넷과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드 소지자가 있는 가맹점에서 가장 적합한 카드와 혜택이 자동으로 제시되도록 설계된 다.

이 사장은 "전자지갑에 모바일 카드를 이론적으로는 80장까지 넣을 수

있지만 막상 쓸려면 어느 카드가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식당에 가서 전자지갑만 클릭하면 해당 식당에서 가장 부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골라주는 인공 지능 기능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씨카드의 스마트폰 도난으로 모바일 카드가 잘못 사용될 때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사장은 "모바일카드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객이 요청하면 주로 쓰는 지역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시스템도 제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비씨카드의 대주주가 이동통신사인 KT라는 점이 향후 모바일 카드 시장을 압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보험상품설명서 4월부터 알기쉽게 바뀐다

납입최고기간? 공시이율?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난무했던 보험상품설명서가 오는 4월부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설명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말로 설명해주는 것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등

전면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입최고기간'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청약철회'는 '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시이율'은 '적용이율' 등으로 순화하는 식이다.

광범위하고 애매한 문구는 구체적이고 예시를 든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직입, 현

재와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의 구체적인 예를 넣어주는 것이다.

보험가입설계서와 겹치는 부분은 삭제해 분량은 현재 15쪽 내외에서 7~8쪽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자 생명보험협회에 중립적·객관적인 의료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한다. 위원회는 협회의 관련 운용규정 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한제분 밀가루값 평균 8.6% 인상

동아원과 CJ제일제당에 이어 대한제분도 밀가루 가격을 올렸다.

대한제분은 9일부터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6%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제분의 한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이 40% 이상 급등해 어쩔 수 없이 출고가를 올렸다"며 "다만 불가

로 하는 등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아원은 8.7%, CJ제일제당은 8.8%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밀가루 시장의 75%가량을 차지하는 1~3위 업체가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자 과자, 빵, 면류 등 식품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companies like Kwangju Bobsam, Korean Domestic Products, and others.